

2012
제31권 2호
통권 172호

홍성문화

- 은하면 장척리 배참판댁 2 | 한종구
- 소박하지만 직접적이었던 조선의 다양한 언론 1 | 김경수
- 홍성의 불교 전설과 실제 | 김정현
- 갯이 갈매기의 꿈 | 정명순
- 퇴임하는 전용택 문화원장 | 조성미
- 일본에 다녀오다 | 박수영
- 의붓누이 | 최규원
- 효자가 엮지른 개장국 | 신현배
-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Hongseong Cultural Center



역재방죽과 함께하는 흥성문화원

흥성문화원은 일제 침략과 6.25 사변이후 농촌의 생활면에서 침식 풍마된 압농사상과 도의 및 윤리 생활면의 퇴폐된 불신과 부정의 사회적 사조와 요소의 근인이 되어 민심의 불안저오가 민간생활의 양극성을 초래하였기에 국민생활의 건전한 기풍진작과 민심순화를 위한 공보계몽사업의 필요성과 향토문화사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당시 안상혁씨께서 문화원 설립을 착상하고 이를 추진키 위하여 흥성군 관내 각기관장 및 유지 연석회의에서 설립 추진을 결의하고 흥성문화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원 창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54년 3월 안상혁(安相赫) 초대 원장이 취임, 1956년 9월 2대 원장에 전영희(全永喜), 1960년 10월 3대 원장 김동주(金東耆), 1961년 12월 4~9대 원장 주연종(朱璉鐘), 1984년 5월 10대 원장 오준영(吳駿永), 1987년 3월 18일 11~13대 원장 황규철(黃圭喆), 2004년 12월 14,15대 원장 이하영(李夏永), 2004년 12월 16,17대 전용택(田溶澤) 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이 흥성의 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성문화원은 지역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동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배움의 터는 물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기 개발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4_ 논단 - 은하면 장척리 배참판택 2 (한종구)
- 15_ 논단 - 소박하지만 직접적이었던 조선의 다양한 언론 1 (김경수)
- 18_ 홍성의 전설 - 홍성의 불교 전설과 실제 (김정헌)
- 27_ 기행문 - 갯이 갈매기의 꿈 / 2012 독도에 다녀오다 (정명순)
- 38_ 인터뷰 - 퇴임하는 전용택 문화원장 (조성미)
- 42_ 한시
- 44_ 시
- 48_ 기행문 - 일본에 다녀오다 (박수영)
- 53_ 수필 - 의붓누이 (최규원)
- 58_ 홍성에 얽힌 동화 - 효자가 엮지른 개장국 (신현배)
- 61_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 76_ 2012 하반기 문화원 행사
- 82_ 2012 홍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은하면 장척리 배참판댁 2

한종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금번 호에는 은하면 배참판댁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지난 호에 이은 두 번째 부분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내용 중 구술체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의 거주자인 박예분 할머니와의 대화내용에서 채록된 것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3. 일반구조, 입면의장 및 환경설비

3.1 일반구조

3.1.1 기단(基壇)

배참판댁의 가옥은 자연석을 이용한 막돌쌓기로 기단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양반들의 가옥 짓기 형식인데 기단을 습기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위세(威勢)를 나타내기 위해 기단을 올려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택의 경우 1단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올린 형태이다.

배참판댁은 산등성의 습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기단의 높이는 약 2尺이며(그림 22), 안채와 사랑채의 기단은 공사 보수로 인하여 시멘트로 보수되었다.



▲ 그림22. 막돌쌓기 기단

3.1.2 초석(礎石)

배참판댁의 초석은 사랑채와 안채 모두 커다란 자연석을(그림 23) 사용하였고 안채는 둥글게 다듬어진 막돌형태의 방형자연초석을(그림



▲ 그림23. 안채 초석



▲ 그림24. 사랑채 초석

24) 사용하였다. 초석의 크기는 안채의 경우 높이 28cm, 윗면 37cm, 밑면 40cm이고 사랑채의 경우 높이 30cm, 윗면 34cm, 밑면 30cm 정도의 자연초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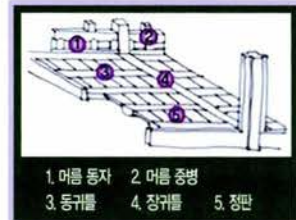
3.1.3 바닥

바닥구조는 온돌·마루·흙바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방은 온돌로 만들어져 있고 광·부엌·축사는 잘 다져진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마루는 대부분 마룻귀틀을 짜서 세로 방향에 짧은 널을 깔고 가로 방향에 긴 널을 깔아서 '井'자 모양으로 짠 우물마루인데 배참판댁의 경우에도 우물마루를(그림 25) 사용하며 안채 마루는 '기'자 형태이고 높이는 약 2尺 정도로 높은 편이고 사랑채는 '미'자 모양으로 높이는 같다.



▲ 그림25. 안채 우물마루

이 당시 마루는 제사 및 가족모임의 주된 장소로 대부분 크게 되어 있으나 이 집은 4칸으로 마루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이 특징이다.



▲ 그림26. 우물마루 짜임

- 1. 머름 통자 2. 머름 중병
- 3. 등귀틀 4. 장귀틀 5. 정판

3.1.4 기둥



▲ 그림27. 기둥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은 대부분 각기둥과 원기둥을 사용하는데 배참판댁의 경우는 부엌의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각기둥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배씨 고택의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안정감과 착

시교정을 하기 위해 기둥 위보다 아래가 작은 민흘림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옥의 기둥 두께는 평균 16cm정도인데 이 고택은 조금 더 두꺼운 19cm 이고 기둥의 모접기는 평골모이다. (그림 27)

3.1.5 지붕가구

배참판택의 사랑채와 안채 모두 가장 간단한 구조로 창방이 없는 민도리 형식이고 장혀 또한 생략되어 있는 오량가구이다.



▲ 그림28. 기둥과 도리



▲ 그림29. 오량가구

3.1.6 천장과 처마

배참판택의 건물은 살림집의 주류를 이루었던 연등천장으로 되어있고, 서까래의 구성은 사랑채, 안채 모두 나란히 서까래로 되어있다.



▲ 그림30. 서까래

3.1.7 지붕

안채의 지붕은 한옥의 지붕 중 가장 아름답고 구성미를 지닌 팔작지붕이며 (그림 31) 사랑채는 오래전에 개량으로 인하여 현재는 함석지붕으로 되어있다. (그림 32)

팔작지붕은 집의 규모가 크거나 격을 높일 때 사용하는데 이는 이 고택의 주인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그림31. 안채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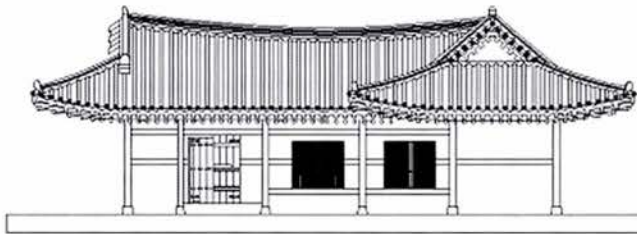
▲ 그림32. 사랑채 지붕

3.2 입면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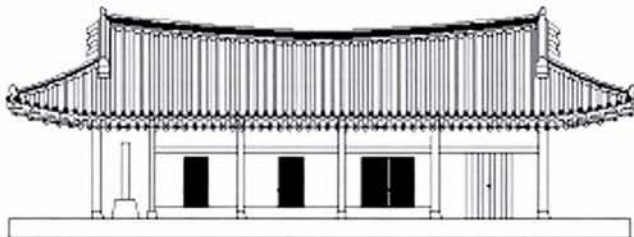
3.2.1 입면구성

1) 안채의 입면구성

안채는 팔작지붕으로서 지붕과 개구부의 비율이 1:1.3 정도이며 개구부에는 4개의 방이 위치하여 있고, 부엌과 광이 위치하여 있다. 이 고택은 머름을 가지고 있고 매우 작은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으며 대청마루 앞에는 기단 위에 시멘트로 덮은 상태이다. 현재는 사계절에 맞춰 비닐 또는 방충망을 쳐서 추위나 해충을 막을 수 있게 보수하였다. (그림 33)



▲ 그림33. 안채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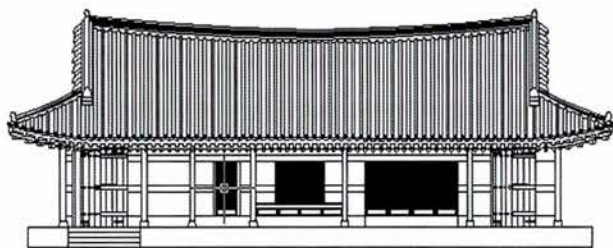
▲ 그림34. 안채 배면

2) 사랑채의 입면구성

사랑채는 대부분의 상류주택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현대로 오며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는 함석지붕으로 교체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율은 1:1 정도이고 한 칸의 방과 대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평면을 볼 때 개보수 중 벽을 허물고 하나로 합친 결로 여겨진다. 사랑방 전면에는 창호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개의 대문 사이에 위치한다. 대청마루 또한 전면에 창호 문으로 막혀있고 안채와

마주보게 되어 있다.

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관계로 방을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시집을 당시에는 일꾼들이 묵는 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 그림35. 사랑채 입면

3.3 환경설비

3.3.1 취사, 난방설비

1) 부뚜막

부엌은 주로 동쪽이나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대문과 안방의 배치관계에 따라서 부엌의 향이 정해졌다. 안방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엌은 안주인이 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배치이지만 작업자의 동선을 보면 우물, 장독대, 광 등의 보조시설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동선과 기능적 측면에서 불편하며 작업자의 배려 또한 미흡하였다.¹⁾ 부엌의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바닥은 방바닥보다 낮는데 이는 아궁이에서 땀 불길이 방고래로 빨아들이도록 되어있는 온돌 구조 때문이다.



▲ 그림36. 안채 대청의 개조된 부뚜막



▲ 그림37. 안채 원부뚜막

박예분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이 집의 부엌은 동남향이며 가사 일을 하는데

1) 박영순 외, <우리 옛집이야기>, 열화당, 1998, p.88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다. 부뚜막이 있지만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하셔서 안채의 대청마루 가장 끝 쪽에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그림 36) 그래서 현재 이 부엌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3개의 솥을 사용했던 흔적을 볼 수 있고 한 쪽에는 조미료를 놓았던 찬장과 커다란 쌀독이 위치하여 있다.(그림 37) 또한 바닥은 이 지역이 습한 지대라서 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흙으로 다듬질한 후 물꼬를 아궁이 앞쪽에 두어(그림 38) 물을 지피는데 지장이 없게 하였다.



▲ 그림38. 부뚜막 바닥

2) 굴뚝

굴뚝은 안채와 사랑채 두개의 굴뚝이 남아있는데 사랑채에는 정면에 하나 있고 안채는 뒤 곁에 하나가 있고, 안채의 굴뚝은 벽체에서 약 1m 떨어져 있지만 사랑채의 굴뚝은 벽체와 마주하고 있다. 두개의 굴뚝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는 PVC관으로 대체되어 그 위치만을 알 수가 있었다.



▲ 그림39. 안채 굴뚝



▲ 그림40. 사랑채 굴뚝

3.3.2 기타시설

1) 장독대와 상·하수 시설

현재의 장독대는 안채부엌 뒤쪽에 위치하고 가로 2.5m, 세로 1.5m 정도의 크기 위에 장독들이 놓아져 있다. 이곳은 아직도 2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장독들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41) 상하



▲ 그림41.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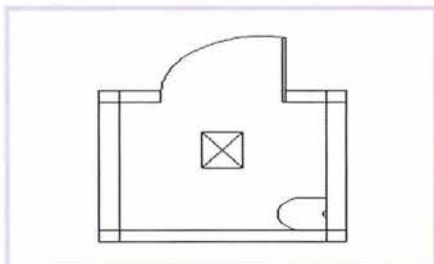
수도 시설은 현대식으로 개조된 편이라 잘 갖추어져 있고 부엌 앞의 수돗가와 개조된 부엌이 있으며 할머니가 시집을 당시에는 물을 중문 앞 우물에서 길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2) 측간

측간은 안채의 오른쪽에 부속되어 있으며 평면으로 볼 때 광과 측사 옆에 위치한다. 예전의 모습은 볼 수 없으나 현재는 보수되어 사용되고 있고 주위를 콘크리트 시멘트로 벽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와의 거리는 약 3m 정도로 매우 가깝다. 이 집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조한 나무로 좌변기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림 42, 그림 43)



▲ 그림42. 측간



▲ 그림43. 측간평면

3) 광

광과 측사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두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광은 안채에 부속되어 있으며 중문 정면에 하나와 뒤 곁 안방 뒤쪽에 하나로 총 두 개가 있다. 사랑채에는 대문 정면으로 곳간과 측사가 있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수확기에 쌀이나 가축의 사료 등을 저장하였다고 하며, 측사는 모두 3개 있었다고 한다.

4) 머름

머름은 우리나라 한옥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주로 양반집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44) 마당이 있는 경우 마당에서 집안에 누어 쉬면 보이지 않게 턱을 만들어 사생활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머름



▲ 그림44. 머름

위에는 창호로 된 창의 역할을 하는 문이 있다.

5) 합실아궁이

합실아궁이는 부뚜막 없이 구들 밑에서 직접 불을 댈 수 있도록 만든 아궁이로서 난방만을 위한 시설이며 주 연료로는 나무를 사용한다. 이 주택에서는 대문 옆 사랑채에 바로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지금은 합실아궁이를 사용하지 않아 그 자리를 막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있다.(그림 45)



▲ 그림45. 합실아궁이 위치 (점선부분)

4. 풍수지리적 해석

혈 자리에 앉아서 앞을 향해 좌측에 있는 산줄기나 물은 좌청룡에 해당되고, 우측의 산줄기나 길들은 우백호에 해당 된다.

청룡은 활기 있게 활동적으로 솟구치듯 꿈틀거리며 뻗어 주어야 생룡(生龍)인 반면 청



▲ 그림46. 위성사진으로 본 가옥 주위의 형국

룡이 일자로 길게 누워 있으면 이는 사룡(死龍)이나 병룡(病龍)을 말한다. 이에 반해 백호는 꿈틀거리거나 솟구치듯 갈갈히 날뛰면 이는 호환(虎患)에 해당하므로 불리하다.²⁾

본 가옥의 청룡과 백호는 형세가 짧긴 해도 백호는 길게 누워있으며 청룡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척마을은 청룡과 백호가 낮은 산세이긴 하나 짧게 겹겹이 마을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혈에서 청룡이나 백호까지 거리는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세에 따라 짧게는 10m, 길게는 100m 이상 떨어진 것도 있다. 혈에서 청룡이나 백호까지 거리는 복을 일으키는 시간과 관련된다.³⁾

2) 정영훈, <생활풍수강론>, 기문당

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본 가옥은 청룡이나 백호가 집터에 가깝게 있는 경우인데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는 그 집에 입주한 날부터 경사



▲ 그림47. 우백호

스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여 5년 안에 재산과 명예가 따르고 건강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기도 한다.

집안에서 중심공간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집안 중심점에서 패철을 사용해서 기운이 모이는 방위를 찾는 것이다.

본 가옥은 남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집의 북쪽 중심에 모인다. 그러므로 이 집의 중심기운은 북쪽이 된다. 북쪽은 동기를 띤다. 따라서 이 집은 동사택이 되는 것이다.

가옥의 좌향은 자(子)좌오(午)향으로 대문은 손(巽)방과 곤(坤)방에 위치하고 안방은 임(壬)방에 위치한다. 부엌은 예전과 지금의 위치가 틀려졌는데 옛 부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예분씨의 말을 통해 손(巽)방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부엌의 위치는 해(亥)방에 위치하고 있다.

집		향	남향집	
		구분	동-서사택	동사택
			음양	양
오행	수			

표 1. 가옥의 향과 구분

위치	대문	중문	안방	옛부엌	현부엌
구분	서사택(곤방)	동사택(손방)	동사택(임방)	동사택(손방)	서사택(현방)

표 2. 가옥의 각 위치와 구분

우선적으로 안방과 대문과 부엌을 하나하나 보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안방의 위치는 동사택인 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집의 구조가 동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아 서로 같은 동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건강을 얻고 재물이 늘어난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옛 부엌은 동사택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로 잘 맞는 기를 가지고 있지만 현 부

업이 서사택으로, 집터가 동사택인 것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기를 가지고 있어서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대문의 방위도 집이 자리한 방위만큼 중요하다. 대문은 사람의 출입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바람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람이 들어오면 그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르기 때문이다. 대문 위치도 꽤철로 측정하는데 본 가옥은 대문이 두 곳이다. 손(巽)방과 곤(坤)방이다. 대문이 곤방(남서)에 위치할 때는 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을 잃지만, 손방(남동)에 위치할 때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집안 식구가 모두 건강하며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며 가장 이상적인 집이 된다.

양택삼요에서 대문(門)과 안방(主)과 부엌(灶)을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우선 곤문감주건조(坤門坎主乾灶)는 곤감(坤坎)은 중남의 수명이 없다.

이름 하여 절명택으로 수(水)가 토(土)의 극을 받아 심장과 배가 아프고 적과와 황충병이 있으며 중남의 수명이 짧고 수절 과부가 양자로 대를 이으며 재산은 점점 어려워져 망하고 도적이 들고 속임을 당하고 소송과 구설이 있으며, 둘째 아들이 먼저 망하고 이어서 다른 형제들이 망한다. 건조의 부엌은 초년에는 약간 길하나 오래되면 음탕하고 집안이 쇠하여 후손이 없다.

하지만 손문감주건조(巽門坎主乾灶)의 해석은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바람과 물이다. 이름 하여 생기택으로 탐량이 제자리를 잡아,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남녀가 준수하며, 자식은 효도하고 손자는 어질며, 자손들이 집안에 가득하고, 부귀가 최상급이며,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과거의 갑과에 연달아 합격하며,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리는 제일 좋은 집으로, 자손들이 크게 왕성하고, 부녀자는 어질고 착하며 집안에 벼슬을 못한 사람이 없다. 건의 부엌은 간혹 과거에 급제하고 크게 부자가 되며 자손이 크게 왕성한 사람이 있다.⁴⁾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곤방에 있는 대문은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곤방의 좋지 못한 기운을 손방에 중문을 두어 좋은 생기를 띄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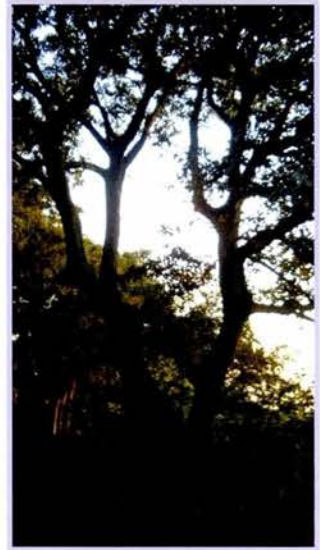
집은 물론 일반 건물도 산의 좋은 기운을 받고, 산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본 가옥은



▲ 그림48. 매봉재

4) 김경훈, <양택삼요>, 자연과 삶

산 정상에서 내려온 능선과 집 중심축을 일치시켜, 지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가옥의 형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위의 그림으로 매봉재에 오르는 길에서 산의 기운이 흐르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49. 성황단과 장수바위

매봉재에 올라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마을의 민속신앙을 느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봉재의 주인 격인 성황단으로 보이는 커다란 나무와 그 아래 장수 바위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곳은 과거 조상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장소였다고 한다.

5. 종합고찰

본 가옥은 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주위의 지형을 보면 겹겹이 마을을 품고 있는 좌청룡과 우백호가 가옥 가까이 있고 산세가 낮아서 위압감이 없어, 살기를 띄지 않는다. 또한 북서쪽도 낮지만 산으로 막혀있어 겨울에 부는 북서계절풍의 한랭한 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서 바람의 기운을 갈무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가옥의 좌향도 남향으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향을 띄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동기와 서기가 조화롭게 잘 되어있다. 하지만 대문과 안방의 기가 틀려 좋은 조화는 아니지만 중문을 두고 조화를 맞추어 집안에 건강과 복이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옛 선조들의 풍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다.♣

소박하지만 직접적이었던 조선의 다양한 언론(1)

김경수 |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언론은 민주적 사회제도와 다양한 자유로운 소통 장치들과 더불어 발전하고 확장된다. 그래서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민주화되었다고 말하는 지금, 많은 매스 미디어 장치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들의 '흥밋거리'로 유도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언론매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한류'라는 미명 아래 10대 연예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상세히 보도하는가 하면, 특정 연예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해프닝을 전국적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은 결정된 결과에 치중해 보도할 뿐이다.

비행기 트랩에 올라 손을 흔드는 대통령과 공식 방문지를 순방하며 보이는 환한 웃음, 그리고 화려한 만찬에서 축배를 드는 정상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방영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나누는 구체적인 대화와 고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은 화면 밖에 존재할 뿐이다. 언론은 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호에 영합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시대였던 조선의 언론은 어떠했을까? 흔히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라 여겨졌다고 생각하는 절대왕정체제 하의 조선에서도 언론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왕이 가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 붙는 사관이 있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사관의 붓은 왕권으로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는 카메라이자 녹음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왕은 물론 모든 관료들의 실비득실을 탄핵하는 언론기관이 있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나 정책 집행을 탄핵했다. 감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암행감사가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된 오늘과 비교 해봐도 그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언론활동을 담당했던 중앙 정치기구가 별도로 운영되었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언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1. “전해! 아니 되옵니다.” - 신하들의 반론권, ‘상소’

펜은 칼보다 무섭고, 몇 방울의 잉크가 역사를 뒤집는다고 했다. 잠시의 힘에 굴복하기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은 붓을 가진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이상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소 문을 나서던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것 역시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현직에 있든, 낙향하여 시골에서 생활을 하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예비 관료군 이든 자신이 처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국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다.

사극을 통해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 중 하나가 임금이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쳐 읽으며 ‘상소’ 운운하는 장면이다. 신하가 왕께 건의나 청원, 진정 등을 담아 올리는 문건이 바로 상소이다. 봉장(封章) · 주소(奏疏) · 진소(陳疏) · 장소(章疏)라고도 불렀던 이 상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만만

한 언로는 아니었다. 읽든, 읽지 않던 임금의 코앞까지 올라가는 문건인 만큼 절차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소는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방법이다.

상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단 각 군현의 수령이 문건을 수령하여 도의 감사에게 올리면, 감사는 중앙의 형조 또는 사헌부에 올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월소'라 하여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의 엄격성은 더욱 강화되어 후기에는 절차를 무시한 자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임금의 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때는 한성부가 형조의 관할이었던 노비에 관한 소송과 상소의 심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성부는 상소의 1심과 2심 기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상소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고쳐진 것도 있고, 간혹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상소의 본래 내용이 아닌 기사가 수록된 것은 실록 편찬시 편찬관들이 내용의 일부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록 등에 상소를 수록했다는 것은 지배층이 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상소가 지닌 역사에 보존할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는 임금에게 올리기까지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피할 수 없었고, 수렴 과정상의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 정국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왕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시정까지 도모했다는 점에서, 왕건을 견제하고 계층 상호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언론활동이었던 것이다. ♥

내가 마을
→

홍성의 불교 전설과 실제

김정현 | 동화작가 · 갈산초등학교 교장

우리고장 홍성지역의 전설은 비교적 각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전설들을 채록하여 기록으로 옮겨놓은 숫자는 대략 130여 편 정도 된다. 이 전설들은 각 지역에서 아직까지 구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전설들은 구전이 끊어지고 기록에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홍성지역에서 채록되었던 전설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충·효와 종교와 풍수지리와 유래담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불교 전설 13편이 채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불교 전설이라는 의미는 전설의 내용과 등장 인물의 일부가 불교(사찰과 스님이 등장하는 내용)와 관련된다는 뜻이다.

홍성의 불교 전설 중에서, 모두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전설 세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다음 전설을 살펴보면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노스님을 깨우친 옹달샘

우리고장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에 내가마을이 있다. 금마면 소재지 남쪽의 덕정 4거리에 있는 마을이며, 616번 지방도와 3번 군도가 지나가고 있다.

내가마을은 특이하게도 부처물, 부처샘, 불정 등 부처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아마도 마을 주변 어딘가에 사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측된다. 구전에 의하면 내가마을 안쪽으로 더덕미라는 큰 마을이 있는데, 더덕미 서쪽 산고랑에 아담한 절이 있었다고 한다. 더덕미라는 이름은 마을 뒤쪽 산에 더덕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는 안더덕미 서쪽에 있는데, 뱃고지라고 부른다.

어느 날 이 절에 큰 불이 났었다고 한다. 스님들은 물을 퍼 나르며 불을 끄려고 뛰어들었지만 조그만 절은 삼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절에 남아있는 것은 기와조각과 주춧돌 그리고 조그만 석불 하나였다.

절의 주지인 노스님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신도 절에서 떠나왔다. 노스님은 잿더미가 된 절을 떠나면서 혼자 남아있는 석불을 바랑 속에 넣었다. 석불은 노스님이 평생 동안 절에 모셔두고 의지하며 기도하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았다.

노스님은 정든 절을 떠나가는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산 아래 들판 가운데를 걸어 내려가다가 옹달샘 옆에서 목을 축이고 잠깐 쉬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절과 산 고랑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을 알기위해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수도생활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깊은 상념 속에 빠져있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너는 어찌하여 한낱 돌덩이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가?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늘, 보잘 것 없는 돌덩이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한단 말이나? 참으로 미련하고 미련한 인간이구나."

노스님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때리는 생생한 목소리만 귓가에서 맴돌 뿐이었다.

'.....'

노스님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생생한 울림은 그대로 귓가

에 남아서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노스님이 돌덩이처럼 서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절을 떠나올 때 동녘에 걸려있던 해가 벌써 서쪽 산마루에 노을을 드리우고 있었다.

드디어 노스님이 몸을 움직였다. 길 떠날 차비를 서두르듯이 서서히 바람을 집어 들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바람을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었다. 바람 속의 석불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웅달샘 속으로 석불을 던져버렸다.

어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땅속의 수맥이 터진 것처럼, 갑자기 웅달샘 속에서 거센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노스님은 하늘높이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웅달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 샘을 '부처물' 또는 '부처샘'이라고 불렀다. 마을이름도 자연스럽게 부처물이 되었다. 불정(佛井), 부처굴, 부처동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부처물은 예로부터 물이 귀하고 천수답이었는데, 부처샘 덕분에 주변 논들은 물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관정을 파놓은 것처럼 풍부한 물을 팔팔 쏟아내고 있다. 부처샘 아래로 펼쳐진 들녘은 항상 물이 가득하고 기름져서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 되었다.

사람들은 부처샘 아래로 펼쳐진 들판을 '부처샘배미'라고 부른다. '부처물 구레' 또는 '부처물구렛들'이라고도 부른다.

부처샘은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고 맑은 물을 가득 품고 있다. 아울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을이름의 유래와 전설도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다.



내가마을(부처물) 표석



부처샘과 부처물 전경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님은 절이 불에 타버리자 불상 하나만을 짊어지고 어디론가 길을 떠난다. 길옆 옹달샘 부근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한낱 돌덩이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가?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늘, 보잘 것 없는 돌덩이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한 단 말이나? 참으로 미련하고 미련한 인간이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어서 스님은 평생 불상을 떠받들고 기도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동안 소중하게 모시던 불상을 샘물에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린다. 그 뒤로 샘물에서는 물이 펄펄 쏟아지며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노스님을 깨우친 옹달샘' 전설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하천연(丹霞天然) 선사의 일화를 살펴보겠다.

천연선사가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교화를 펼치던 중, 해림사라는 절에 머물 때의 일이다. 엄동설한의 강추위를 견디다 못한 천연선사는 법당으로 가서 목불을 들 어다가 도끼로 잘게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남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거리고 있는 동안, 천연선사는 뒀옷을 벗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옆방의 스님들이 무슨 재주로 방을 따뜻하게 했느냐고 물었다. 목설이 계속되어 땀감이라곤 아무 것도 없던 때였다.

"법당에 있는 목불(木佛)을 갖다 뒀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들이 큰일 났다면서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수백 생을 다 바쳐도 그 죄는 씻을 수 없는 대죄라고 입을 모았다. 지옥엘 가더라도 가장 고통스런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경내가 발각 뒤집혀 이 몰상식한 천연선사를 성토하고 있을 때, 천연선사는 천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을 화장해서 사리를 얻어 볼까 했습니다."

"아니,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다고 그런 미친 짓을 했던 말ियो? 그건 나무토막이란 말ियो!"

"그렇다면 왜 나를 꾸짖는가?" (이하 생략)

천연선사는 행여 부처님을 우상화할까 경계했던 것이다. 사리도 나오지 않는 부처님이라면 일개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조각이라면 나뭇가지에 지

나지 않는 것이다.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으로 받아야지 그 이상까지 빠지는 것은 선승의 도리가 아니라고 대중을 깨우쳤다.

또한 석가모니는 임종 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진리)에 의지하라.”고 했다 한다.

‘노스님을 깨우친 옹달샘’ 전설 역시,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이란 불상 등 어떤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 담겨있는 전설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우리고장 용봉산에 전해지고 있는 ‘쥐산과 싸라기내’ 전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설은 억압받는 민중들이 부처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민중의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쥐산과 싸라기내

우리지방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용봉산 골짜기에 대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절이 큰 것과 비례해서 불도를 닦는 스님들 역시 무척 많았고, 아침저녁으로 스님들의 공양드릴 쌀을 씻는 양도 상당했다.

스님들이 쌀을 씻을 때, 그릇위로 넘쳐흐르는 싸라기가 산 아래 개천으로 하얗게 휩쓸려 내려갔다. 이런 이유로 개천 이름이 '싸라기내'로 불리고 있다. '용봉천'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싸라기내'라는 이름을 즐겨 부른다. 용봉산 아래 개천으로 싸라기가 쌓이면서 충청도에 있는 모든 쥐들이 모여들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싸라기내야말로 쥐들의 천국이 된 셈이었다.

어느 날부터 충청도에 있는 고양이들은 갑자기 배를 주리며 굶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의 양식거리인 쥐들이 감쪽같이 없어졌으므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대체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고양이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쥐들의 행방을 찾아보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본 결과, 용봉산 아래 싸라기내로 쥐들이 모두 몰려간 것을 알았다. 충청도의 모든 고양이들 역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용봉산 아래로 몰려왔다.

고양이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삼삼오오 모여앉아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보았다. 더 멀리로 도망가자는 등, 다른 먹잇감을 만들어주자는 등, 잡혀 먹힐 바에야 힘을 합쳐서 싸워보자는 등, 별별 생각들을 모두 해보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뾰족한 방법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살아날 방법을 찾던 중에 무릎을 탁 치며 앞으로 나서는 쥐가 있었다.

"좋은 방법이 있다!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야! 살생을 금지하는 부처님 품안까지 고양이들이 쳐들어오지는 못할 테니까!"

부처님 품안까지는 고양이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설명이었다. 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작전이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부랴 부랴 부처님의 품속인 절 아래로 몰려가서 몸을 숨겼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몰려온 고양이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감히 부처님이 계신 절까지 들어가서 살생을 할 엄두를 못 내었다. 싸라기내 건너편에 모여앉아서 시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싸라기내를 사이에 두고 용봉산 절 아래로는 쥐들이 몸을 피해서 모여 있었고, 건너편 쪽에는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다.

1970년대까지 고양이들이 모여 있던 곳에는 고양이를 닮은 바위가 있었는데, '고바위'라고 불렀다. 고바위 앞에는 조그만 방죽이 있었고, 이를 '고양이 방죽'이라고 불렀다.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농지정리 과정에서 고바위는 고양이 방죽과 함께 땅속에 묻히고 말았다.

용봉산 기슭 아래 상산마을 들판 가운데에는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솔밭 하나가 있다. 쥐들이 부처님 품안으로 피해 들어와서 모여 있던 산이라고 한다. 이 산을 쥐산이라고 부른다.



쥐산 전경

이상의 전설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충청도 쥐들은 부처님이 계신 용봉산 품속으로 몸을 숨긴다. 먹이를 찾아온 충청도 쥐들은 부처님의 품안으로 숨어든 쥐들을 감히 살생하지 못하고, 냇물 건너에서 기회를 노린다. 그 후 쥐들이 피해있던 곳은 쥐산이 되고, 고양이들이 모여 있던 곳은 고바위가 되었다. 이 전설에서 쥐들을 힘없는 민중으로 비유하고, 고양이를 권력자나 침략자로 비유해볼 수 있다.

홍성은 과거 홍주목의 중심지로서 많은 권력자들이 행정을 이끌던 곳이다. 더구나 세월의 고비마다 숭한 전쟁과 함께 침략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은 지역이다. 이 지역 민중들은 권력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했을 것이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으로부터 편히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민중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전설은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불살생' 의식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출가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신자들도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부인 이외의 여성과 교제를 하지 않고, 물질 등에 집착하지 않는 계율 등이 불교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쥐산과 싸라기내' 전설은 힘없는 민중들이 편히 쉴 곳을 찾고자 하는 의식과 함께 불살생의 계율을 강조하는 의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뇌와 해탈의식이 담겨있는 전설 한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에서 번뇌란 중생의 몸과 마음을 괴롭힘으로써 깨달음과 열반의 장애가 되는 모든 정신작용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홍성의 불교전설 중에는 애육에 빠져 번뇌하는 스님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다.

젯샘

우리고장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금배마을에 500여년 된 회화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이 회화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마을을 지켜온 수호목으로서, 마을사람들의 정신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회화나무 밑동 바로 아래에는 오래된 웅달샘이 맑은 물을 퐁퐁 내뿜고 있다. 이 웅달샘은 한 동승의 이루지 못한 애달픈 사랑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마을 뒤횥에 있는 피꼬리산 기슭에 암자가 하나 있었다. 암자에는 노스님이 데려다 기르는 동승 한명이 있었다. 동승은 노스님이 장차 암자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불사를 가르치는 중이었다. 동승도 노스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잔심부름을 하며 열심히 불경을 외웠다.

어린 나이에 암자에 들어온 동승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웅달샘에는 아침저녁으로 물을 길러오는 소녀 한 명이 있었다. 동승은 웅달샘가에서 소녀를 몇 번 마주치면서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소녀와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견잡지 못했다.



젯샘과 회화나무

하지만 스님의 신분으로서 소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을 꾸짖으며 소녀를 잊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목탁을 두드렸지만 눈앞에서는 소녀의 모습만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동승의 이상한 행동은 노스님의 눈에 띄었다. 노스님은 동승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소녀의 부모님에게 알려서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은 딸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젊은 스님과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날에는 큰 흠집이 아닐 수 없었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소녀를 다른 곳으로 출가시키고 말았다.

그 뒤로 소녀가 웅달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다. 이유를 모르는 동승은 더욱 몸이 달아올랐다. 몇날 며칠 동안 소녀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소녀가 사는 집 주변으로 찾아가서 사연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동승에게 돌아온 소식은 모든 꿈이 사라지는 아픔뿐이었다.

동승은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말았다. 피꼬리산 암자 주변에는 동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듣는 이의 애간장을 끊어내는 듯했다. 결국 동승은 짝사랑했던 소녀의 모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동승이 숨을 거두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멀찍하던 회화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철철 넘치던 옹달샘이 말라붙고 말았다. 노스님은 말라붙은 옹달샘가에 앉아서 열심히 목탁을 두드렸다. 못 이룬 짝사랑의 한을 품고 죽어간 동승의 넋을 달래며 목청이 터져라 불경을 외었다.

노스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인가. 부처님의 노하심이 풀어지고, 동승의 아픈 마음도 많이 풀어졌던 것인가. 동승의 눈물자국처럼 말라버린 옹달샘 바닥에서 다시 샘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이 옹달샘에서 큰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옹달샘 이름도 제를 올리는 샘이라고 하여 '젯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마지막 깨달음의 직전에 중생들을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마왕의 심한 방해에 직면한다. 마왕은 맨 먼저 자신의 세 딸을 보내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유혹했으나 넘어가지 않았다. 마왕은 더욱 화가 나서 태풍, 폭우를 보내고 창칼, 불화살, 돌을 던지며 악귀를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막아내어 마왕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님이 된다. 이를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라 한다.

일반 중생들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괴로움과 즐거움의 상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됨으로써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생이 번뇌로 말미암아 업을 짓게 되고 그에 대한 과보로서 나고 죽는 괴로움의 세계를 윤회하게 된다. 불교는 고통스런 삶의 번뇌를 끊음으로써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 젯샘 전설에서 동승은 애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이 집착의 고통은 죽음으로 이어졌고, 주지스님의 법문으로 해탈하여 열반에 들게 된다. 인간적인 번뇌와 해탈의 과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위 내용 중의 일부는 아래 참고문헌의 본문내용을 옮겨왔습니다.)

☞ 참고문헌 -----

- 이재운, 《목불을 얻어 사리나 얻어볼까》, 서울 : 도서출판 밝은세상, 1991.
- 전중석, 《불교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동일문화사, 2003.
- 장희욱, 《불교학개론 강의 1·2》, 서울 : 도서출판 장승, 2008.
- 김정현, 《우리고장의 숨겨진 이야기(종합판)》, 홍성 : 홍성문화원, 2009.



기행문

괭이 갈매기의 꿈

2012 독도에 다녀오다

정명순 | 물양금시문학회 회장 |

아가, 뼈아픈 새끼손가락아
 이 어미를 원망하거라
 사고무친 망망한 하늘 아래 홀로
 너를 버려 둔 이 못난 어미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실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직 주먹과 억지와 돈뿐인 세상
 제 새끼 살뜰히 거두지 못한 채
 속 불 만 태우는 이 못난,
 두 눈 시뻘겋게 뜨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지지리도 못난 어미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가난이 죄다 힘없는 것이 죄다
 모두 허울 좋은 변명이다
 너를 거두지 못한 그리하여 이젠
 옆구리에 끼고도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뼈마디다 내 피다 목 놓아 우는
 이 어미를 하늘인들 용서하겠느냐
 밝히면 밝힐수록 강한 바위로 우뚝 서서
 붉은 해를 힘차게 끌어올리며
 어미를 지켜 온 아가야

너는 아침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너의 말없는 아픔으로 인하여
 내 몸 불덩이로 끓어오르니
 너와 나 어찌 한 몸이 아니겠느냐
 너의 한숨 깊어질수록
 내 숨통이 조여드니
 어찌 우리 한 핏줄이 아니겠느냐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오늘은 내 너를 으스러지도록 안고
 온 세상 다 듣도록 소리치고 싶구나
 아가야, 잊지 말아라
 바위에 정을 치 듯 심장에 새겨두어라
 너와 나는 우리다, 영원한 우리다. 독도야

「아가, 우리아가」전문



독도는 뼈아픈 이름이다. 괜히 서러운 이름이다. 화가 나는, 안타까운 이름이다. 역사 속에, 교과서 속에, 여론 속에, 흥분 속에, 답답함 속에 묵직하게 걸려있는 섬이다. 우리 땅이라고 핏대 높여 노래 부르면서도, 왜 이래야 하나 발등을 찌고 싶은 아픈 고름이다. 10여 년 전 텔레비전을 통해 독도 다큐를 보던 중 문득 울컥하는 것이 있어 위 시를 순식간에 써내려갔다. 역사로만 느껴지던 아득한 섬, 그 섬에 너무 늦게 발을 디뎠다.

2012년 6월 11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긴 여정에 올랐다. 꼭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뜻 결정을 했지만 막상 결정하고 보니 가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다.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사실은 3박 정도를 해야 여유로울 듯 했다. 아침 7시 20분까지 동대구역에서 집결한다는 연락을 받고 보니 갈 길이 아득했다. 이리저리 궁리 끝에 새벽 4시 30분 홍성에서 승용차로 천안 아산역, 6시 8분 KTX로 신정주, 한 시간 정도 버스로 포항 터미널, 15분 정도 택시로 포항여객선 터미널로, 비교적 순조로운 연결이었다.

KTX 좌석은 칸마다 가운데 동반석이 있었다. 상행과 하행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반은 순행, 반은 역행, 그 중간의 4좌석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동반석은 세트로 판매하고 40% 할인도 된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초면이라 처음엔 서로 마주 앉은 것이 어색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하나 둘 대화가 시작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가 되었다. 독도도 이처럼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 조용히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마주하고 으르렁거리는 한국과 일본의 모습이 떠올라 눈을 감았다.

포항여객선 터미널에 집결한 일행은 9시 50분 1,000명 정도를 탈 수 있는 선플라워호에 올랐다. 바람만 도와준다면 오후 1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출항하던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방송과 함께 30분 정도 지연되었다. 내일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야, 울릉도에 3번 왔는데 한 번도 독도에 가지 못했다, 아예 울릉도에 들어가지 못해 경주에서 2박을 했다는 등 일행들이 경험담을 걱정으로 쏟아냈다. 바람, 바람, 여기도 바람이 문제구나 싶었다.

뱃고동이 울렸다. 출항한다는 신호이다. 드디어 라는 안도와 기대감으로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눈을 감았다. 경상도 사투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깝고, 먼 사람에게는 한없이 먼 울릉도와 독도.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운영진에서 나누어준 책자를 뒤적거리며 먼저 독도로 향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우편번호 799-805), 울릉도에서 동남 쪽으로 87.4Km(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북서향 157.5Km),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기온 12℃, 바람이 많고 습한 지역, 강수량은 연평균 1,240mm, 겨울에는 폭설이 많이 내린다.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팽이밥, 솔패랭이, 박주가리, 갯까치수염, 기린초 등 50~60여종의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데, 건조한 토양과 강한 해풍에 적응하면서 키는 작아지고 잎은 두터워졌으며 잔털이 많아졌다. 동해를 건너는 조류의 중간 서식지 구실을 하여 바다제비, 팽이갈매기, 습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다양한 해양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 시간 정도 늦어진 오후 2시 30분경 드디어 독도의 모도(母島)인 울릉도에 도착했다. 우뚝 솟은 화산섬 울릉도, 부두 시설도 좁아 내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 비좁은 계곡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울릉도는 하나의 산이었다. 화산지형이어서 물은 스며든다. 그리고 다시 분출한다. 울릉도 내륙의 최고의 명승지라는 봉래폭포로 향했다. 성인봉에서 발원해 원시림을 뚫고 낙하하는 물줄기, 바위 틈새에 숨어있던 물줄기가 더운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4시 40분 봉래폭포 계곡을 따라 내려와 내수전 전망대로 향했다. 구름



울릉도 도동항에 들어서는 여객선

낀 날씨, 독도는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 해안가를 돌아본 뒤, 울릉도 특산물인 오삼불고기로 저녁식사를 했다. 육지와 다른 점은 오징어가 돼지고기보다 많다는 것, 요즘은 오징어도 잘 안 잡힌다고 했다. 식사 후 울릉도에서 가장 크다는 대아리조트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1단, 2단, 3단으로 건물이 다랭이 논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멀어서 야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7시 30분 일행은 세미나실에 모였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태 교수와 함께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리적 입장, 역사적 입장, 그리고 진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인 정치적 입장. 역사교사로서 궁금한 것은 그 많은 증거와 진실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였다. 교수의 대답은 역시 한 마디로 '힘',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논리였다. 수업 시간마다 힘이 약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답답함을 느꼈던, 뭔가 시원한 해결책을 갈구했던 나는, 다시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직면해야 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을 제압할,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을 제압할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200년 300년이 흐른 후에 자연스럽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현재로서는 후자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했던 일본은 독도를 강점했고,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 한다. 35년간의 식민통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한국은 독립한다. 해방이후 한국은 당연히 모든 땅을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했고, 일본은 조금이라도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 중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체결될 때까지 총 9번의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1회부터 5회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로, 6회 때는 일본 영토로, 7회에서 9회에서는 어느 쪽도 아닌 채 빼버렸고, 최종 조약문에도 언급하지 않는다. 당시 친일성향의 외교관 윌리엄 J 시볼드가 국무성에 보낸

서한에는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편을 들어주면, 주일 레이더기지 공여 등의 미국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썼고, 결국 일본편을 든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땅이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권이어야 하며, 남들도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찾고 독도에 대해 홍보를 하고 연구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 땅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 땅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작은 노력이 모여 자연스럽게, 아무도 말 못하게 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효지배', 실질적으로 누가 독도에 살고 관리했느냐가 훗날 중요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독도의 풀 한포기, 물고기 한 마리까지 소중한 것이다.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많은 작은 증거들, 조건이 부족할 땐 만들어야 한다. 내가 독도에 발자국을 찍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가 될 것이다. 바다는 잔잔한데 머릿속엔 거친 풍랑이 인다.

6월 11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걱정은 기우였다. 적당히 흐린 날씨, 바람도 비교적 잔잔했다. 6시 30분 이른 식사를 하고, 8시 <독도평화호>에 승선하기 위해 출발했다. 우린 2시간 30분 정도 걸려 독도에 도착, 약 50분 정도 독도를 돌아보고, 다시 울릉도로 나와야 한다. 일반 여행객들은 선착장에 내려 20분 정도 머물다 돌아온다. 특별히 허가받은 우리는 독도에 오를 수 있었다. 어떤 아줌마가 따졌다. 무슨 뻥으로 올라갔냐



동도에서 내려다본 선착장



동도에 게양된 태극기

고. 난 처음으로 생각했다. 선생님이라는 뻘도 있구나.

독도의 주민은 46명,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원 39명과 등대관리원 3명,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도에는 일반 주민인 김성도 이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8명, 가족관계 등록자는 2,631명, 명예주민증 발급자는 2,210명이라고 한다. 선착장에 내려 독도 경비대가 근무하고 있는 초소까지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랐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독도가 동해로 떠올랐다. 갱이갈매기의 울음 가득한 독도는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홀로 우뚝 서있었다. 갱이갈매기가 외로움 때문인지, 반가움 때문인지, 내 머리에 잠깐 앉았다 날아갔다. 우리가 무심한 사이 갱이갈매기가 독도를 지켜왔는가. 갓 부화한 새끼 한 쌍 독도를 찬찬히 읽고 있었다. 독도의 속살을 더듬어 보니 구석구석 작은 풀꽃들이 자라고 틈새마다 피가 돌고 있었다. 단지 섬이 아니었다. 땅이었다. 사람의 땅. 우리의 땅.

오징어회 안주삼아 한 잔 걸친 술패랭이
바위 길에 다부지게 꽃을 피우고
한기를 밀어낸 바닷속은 봄날처럼 화려했네



독도 경비대와 함께



독도리 김성도 이장님과 함께

독도를 나오면서 독도 경비대원과 사진을 찍었다. 마침 이장 아저씨도 만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열악한 독도를 지키느라 검게 그을린 모습, 그들의 미소 속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1시 30분 경 울릉도에 도착해 독도박물관으로 향했다. 1995년 광복 59주년을 맞아 건축한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각종 지도, 일본의 독도 침탈과 허구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 아직도

중단되지 않은 침략 야욕과 우리의 대응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

독도박물관에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되어있다. 작고 아담하지만 다시 한 번 멀리서나마 독도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독도는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에 맑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 울릉도 역사에 드리운 그늘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7시 30분 다시 세미나실에 모인 우리는 분임토의로 느낀 점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집착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독도가 가진 지리·생태적 가치를 넘어 전략적 가치 때문인 것이다. 냉전체제는 무너졌지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대륙의 방위 동맹에 맞설 해양 세력 부상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의 항로를 바꾸게 될 것이고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한해협이 중요한 해로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항로의 길목이자 물류기지, 군사적 거점지로서의 독도를 우리가 먼저 개척해야 한다. 독도를 잃는 것은 곧 동해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괭이갈매기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 날개가 꺾이지 않기 위해 바람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조나단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괭이갈매기의 꿈

멀고 아득한 길이었다
먼 바다에 빛나는 오징어배처럼
눈물겨운 그리움이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멀었다니
독도는 섬이 아니었다
외로운 섬은 더더욱 아니었다
땅이었고 사람이었고



새끼 괭이갈매기

구석구석 핏기가 흐르는 속살이었다
 우리가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이
 독도를 보듬고 있는 갯갈매기
 갯 깨어난 새끼가
 어미의 교훈을 읽고 있었다
 갈매기 울음은 독도의 힘찬 호흡
 뜨거운 숨소리가 바다 깊은 대동맥을 따라
 세상의 차디찬 양심을 녹이고 있었다

6월 13일 수요일, 돌아가는 날이다. 6시 40분 아침식사를 하고 가방을 챙겨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같은 숙소에 머문 팀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해 일정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는데 무슨 일이람, 흘러버렸다. 어쨌든 우리 일행은 울릉도의 나리분지를 돌아보고 2시 20분 배로 포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우린 바다를 끼고, 산을 안고 도는 해안도로를 따라 울릉도의 맛을 느끼기로 했다. 울릉도를 일주하는 도로는 일부 구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다시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원시 그대로의 산과 바다, 이 곳의 삶은 자연이 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었다. 이곳의 특산물인 명이나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뿌리를 끓여 먹으며 생명을 연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박엿은 어떤가. 능선마다 호박 밖에 없으니 엿을 만든 것이다. 지금은 천리향으로 향수와 화장품을 만들고, 더덕을 재배해 젤리도 만든다. 아슬아슬한 산사면이 이곳 울릉도의 텃밭이고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분화구인 나리분지. 이곳 또한 나리꽃의 뿌리를 삶아 먹고



울릉도 나리분지



나리꽃



오징어내장탕



오징어회



호박엿



홍합밥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니,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이름들로 가득했다. 험한 산을 타고 오르니 마술처럼 평지가 나타났다. 나리분지에 도착해 옛사람들이 살기위해 먹었던 나물들을 듬뿍 넣은 비빔밥을 영양식으로 먹었다.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 눈에 덮이지 않기 위해 지은 너와집도 들어가 보고.

그런데 그 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포항에서 출항한 배가 울릉도에 오는 도중에 회항을 했다는 것이다. 가이드의 말을 우린 농담으로 흘렸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갑작스런 소식에 얼떨떨해진 우리에게 가이드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4대가 덕을 쌓아야 배가 회항을 합니다. 하루는 나에서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맘 편하게 먹으세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얘기로만 듣던 일이 내 앞에 펼쳐졌다. 긴급회의를 하기위해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다. 갑작스런 하루에 숙소도 정해야 하고, 식사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내일 나갈 배편도 해결해야 하고,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수평선이 검붉은 색을 띄며 심상치 않은 바다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다. 울릉도에서는 오늘만 걱정하면 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루하루 산다. 하늘과 바다만 바라본다.

섬사람

바다가 단단히 화났다
하늘과 바다가 붉은 선을 긋고
검푸르게 출렁인다. 구름 덮인 하늘은
가끔씩 고향처럼 비를 쏟아낸다
검은 경계가 점점 짙게 해안으로 밀려와
온 바다가 캄캄해지면
우린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봐야 한다
자연에 순응하는 고립
하늘과 바다가 다시 하나 되길 기다릴 뿐이다

긴급회의가 끝나고 특별한 선물로 우린 해안트래킹을 선택했다. 바다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행남등대에서 조동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이국적이기까
지 했다.



울릉도 해안길

6월 14일 목요일, 선물로 받은 하루가 지났다. 과연 배가 뜰까? 아무도 모른다. 떠야 뜨는 것이고 떴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바다는 잔잔했다. 천천히 아침을 먹고 바다를 보며 낮잠도 즐겼다. 이쯤 되면 조금은 섬 사람스러웠다. 11시 30분 짐을 챙겨 리조트를 출발 도동항에 도착했다. 마지막 점심은 피데기 칼국수로 정했고, 시간이 남아 좁은 거리를 몇 번 돌아보았다. 울릉도에는 하나인 것이 많다고 한다. 공존의 배려라고 할까. 하나밖에 없는 작은 커피숍 <나무>에서 룸메이트와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멀미약으로 유명하다는 배약국의 약을 먹고 기다렸다.

드디어 배가 오고 있다. 점점 길이 열리고 있었다. 거품으로 만들어진 하얀 바닷길, 검은 빛을 띠던 수평선은 사라지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어가고 있었다. 바다 밑으로 연결된 대륙판, 독도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



문화는 홍성의 얼굴, 다함께 가꾸고 즐길 때 수준 높아져

조성미 | 홍성문화 편집위원

“홍성도심 가로지르는 실개천 살리고

자연친화적 생태경관 만들자,

아이 손잡고 걷고 싶은 역사 산책길,

문화유적, 농촌체험 투어버스 상시운행 필요”

전용택 홍성문화원장(60세)이 12월 23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지난 2004년 12월 20일 제16대 문화원장에 첫 취임한데 이어 2008년 제 17대에 재선, 8년간 홍성문화원장직을 맡아왔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4시 홍성내포문화축제 결산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전용택 원장을 문화원에서 만났다.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 대통령선거, 연말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차분히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원원장의 퇴임소감은 짧고 조심스럽다.

2004년 처음 문화원장에 취임한 것이 52세.(그리고 보니 8년 새 흰머리가 많이도 늘었다) 타 지역 문화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젊은 문화원장"의 등장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아직 문화원장 자리를 "명예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은 젊은 문화원장에게는 은근한 짐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아닌 케이블방송 사업가라는 점 때문에 소모적인 견제를 받기도 했다. 전용택 원장은 사업가로서 자신의 안목을 살려 문화원 재무에 원칙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문화원 살림살이의 기틀을 잡는데 주력했다. 또 홍성문화원의 전통적인 핵심사업인 향토사연구와 민속자료 발굴 등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은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2005년 남산공원에서 이곳 역재방죽으로 홍성문화원이 신축이전해오면서 설립 50년 만에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 면에서 아담한 공연장과 강의실, 도서관, 실습실 등이 마련되면서 지역 대중들 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었지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다양해졌고,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요가, 풍수지리, 명리학, 서예, 색소폰, 아코디언, 댄스스포츠 등 상시적인 문화 교양강습만 해도 14개 분야에 수강생이 약 270명 정도가 되니까요. 미처 다 수용을 못 해서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역재방죽을 앞마당 삼아 자리 잡은 홍성문화원은 외관이 수려하기로 정평이 났다. 의견 설화가 전해오는 역재방죽 생태공원의 자연 경관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 문화원은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재정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 그나마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건물 유지비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문화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4천만 원 남짓이라고 한다.

“문화원장 초임 때는 주어진 사업만 추진했습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타계 책으로 재임 때부터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토민속자료 발굴, 소외지역 문화예술 공연 등 매년 약 7천~8천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원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남산과 보개산을 잇는 올레길 조성사업을 꼽았다. 또한 우리고장의 옛이야기를 꾸준히 수집 정리해온 김정현(동화작가, 갈산초등학교장)씨 등 지역의 향토사가들과 함께 우리지방의 명산인 남산-보개산, 월산-홍주성 등의 민속자료집 출간, 정기 간행물 <홍성문화> 등 우리지역의 사라져가는 민속과 역사를 수집 정리하는 출판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것도 큰 성과이자 보람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원장의 경영솜씨는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지방문화원 종합경영조사'에서 충남남도에서 유일하게 우수문화원 상위 15%에 선정돼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부문 공모자격을 따내기도 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이면서 자존심이고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홍성을 알리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자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지역의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은 어떤 개발이나 경제 사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문화의 도시로서의 홍성의 미래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연친화적인 도시설계를 제안한 바 있다. 지금도 전원장은 월계천과 홍성천 등 아름다운 하천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홍성 특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홍주성, 조양문 등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하여 쉽표가 있는 교육문화도시로 탈바꿈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공동화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펼친다.

또한 흥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흥성역사문화관광 투어 버스운영을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제안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흥성의 최대 자산은 최영,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등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 위인과 문화유적이 많은 것이고, 흥성사람들이 이 역사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배우는 일에 나서야 흥성의 자산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전원장의 생각이다.

〈흥성내포문화축제〉는 전원장이 임기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는 분야이다. 그 명칭서부터 테마까지 매년 새로 바뀌는 등 늘 새로운 실험대에 서게 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흥성내포문화축제는 전원장 한사람의 숙제라기보다는 축제 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아 풀어야할 과제라고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축제 이야기만 나오면 추진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 그나마 문화원 내에 축제 전담부서를 개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원칙을 관철시키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는 자평이다. 또한 인물축제로서 치러진 올해의 축제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축제'에 방점을 둔다면 호의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도청이전을 기점으로 흥성의 내포축제가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축제에 버금가는 충남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메김하기를 전원장은 바라고 있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그는 아직 젊고, 또 할 일이 많다. 인생 이모작이라 하지 않았던가. 퇴임 후 고향인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걸어볼만한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문화원장으로 지낸 8년의 경륜이 더해진 그의 새 사업에 기대를 걸어 봐도 좋겠다. 건승을 빈다. ♠

又松李海惠(洪東面八卦里石山)

“贈” 雪夜南塘港 偶逢戀客 (“증” 설야 남당항 우봉연객)

倚閒冬夜 徊南塘	의한동야 회남당
客影岸頭 冷落光	객영안두 냉낙광
戀人不識 風寒雪	연인불식 풍한설
借問羞應 居漢陽	차문수응 거한양

“증” 눈오는 밤 남당항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들에게

홍동면 팔괘리 석산 우송 이 해 현

무료한 겨울밤 남당항을 거니는데
부두머리 두 그림자 가로등 불빛이 차가웁다.
저 연인들은...
눈 내리는 이 밤사 추위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는 곳을 물으니 수줍은 대답 서울이라 말하네.

遯巖書院階下“憶”尤庵明齋 (돈암서원 계하 “억” 우암 명재)

當當大義 萬秋同	당당대의 만추동
妄妄黨爭 正道空	망망당쟁 정도공
靑出於藍 君勿語	청출어람 군물어
死師悖史 恨無窮	사사패사 한무궁

돈암서원 뜰아래서 우암 명재를 추억하다

홍동면 팔괘리 석산 우송 이 해 헌

당당한 대의는 만년토록 변함없는데
망령된 당파싸움 바른 도리가 부질없네.
청출어람을 그대는 말하지 말라!
스승을 죽인 패륜의 역사는 그 한이 무궁하도다.

※ 우암 송시열 : 효종, 숙종조문신 노론영유
명재 윤증 : 숙종조문신 소론영유



시

바람개비

김순옥 |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

바람개비가 쉼 없이 돌고 있다
나뭇가지는 요동도 없는데
날개는 쉬지를 앓는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흔적을 남기며 지나는 시간들
색색의 바람개비 날개처럼
아름답게 돌고싶다

홍시

배운진 |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

감나무 가지 사이로
일렁이던 풍성한 들녘 쓰러져가고
가을 내내 해를 짝사랑한 감은
빨간 홍시가 되어버렸다

조금만 흔들려도 어지러운 세상
비바람 불어 있을 거뒤틀가도
곳곳이 버티며 나뭇가지
놓지 않았다

하얀 서리 맞은 아침
포로롱 날아오른 작은 새 인기척에
깜짝 놀란 홍시
붉은 살이 툭 터진다

이봐, 거기

송미경 |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

이봐, 거기
나 멋지지 않아?
이만하면 제법 봐줄만 하지?

시원하게 대답을 듣고 싶는데
바람은 또 나를 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났다
난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후회가 남는다
자꾸만 미련이 남고
자꾸만 해명하고 싶어진다

가슴이 허해서
마구 주워 먹은 나이가
벌써 턱 밑까지 차올랐다

능소화

최규원 | 홍성경찰서 |

땅 위로 싹을 틔운다 싶었는데 어느새
등나무 넝쿨줄기를 잘도 타고 오른다.
담장 밖 너머 세상 소식이 그리워함인지
고운 발걸음 기다림에 설렌 목메임인지
홍황색 붉은 꽃잎으로 선혈을 뿌리듯이
연신 꽃잎을 피우며 하늘을 잡을 듯하다.
달밤 찾아올 천년 전설을 그리워함인지
첫정 품어버린 시간의 잔인함 되뇌는지
연신 검붉은 꽃잎을 태워가며 피우고 있다.
그 긴 기다림에 속내 썩어 문드러졌을 건만
한여름 더운 날을 골라 모진 생명을 키운다.
가녀린 줄기로 오르는 곳마다 꽃을 피워서
혹여나 보지 못한 세상을 찾아 눈길을 돌려
첫 고름 풀려 애잔한 마음 촛불에 놓깃하던
그립고 그리운 사랑을 찾아 노래를 부른다.
시련된 고통만큼 떨어진 꽃잎 시들어가고
바람에 마음실어 붉은 꽃잎 흩날리고 있다.

일본에 다녀오다

박수영 | 갈산고등학교 학생 |

나는 여름방학 중에 학교에서 가는 일본기행에 참가하였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긴해도 첫 해외여행이어서 기대도가 높았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8월 4일 토요일이 됐다. 서해마트 주차장으로 한 10시쯤으로 기억 하는데 그때쯤에 모였다. 도착해보니 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애들이 와있었다. 도착 후 나는 버스에 탔다. 그리고 좀 있다가 출발 후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가이드 쌤을 만나고 짐 검사와 출국심사 후 아주 긴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간사이공항으로 갔다. 가는데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도착하니 이미 밤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원래 예정에 있던 링쿠타운을 마지막으로 미루었다.

그래서 바로 호텔로 가서 저녁을 먹은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가 준비를 하고 선생님 방에서 다음날 예정에 대해 알아온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때 둘째 날 오후인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 오사카성에 대해 발표했다. 나는 발표를 짧고 간단하게 하였다. 그다음에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자유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일본 돈을 이용해 음료수 한 병과 간식 한 개를 샀다. 계산 후에는 엄청난 뿌듯함이 있었다. 그 후 같은 방인 주명이와 좀 떠들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은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준비 후 아침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는 온 사람도 있고 안온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우리는 고베의 기타노이진칸에 갔다. 이곳은 가물가물하게 기억나지만 선진국의 4대항 개항요구에 못 이겨 개항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낸 마을이 바로 우리가 갔던 기타노이진칸이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살았다는 증거로 외국식 저택이 있다. 외국식 저택은 꽤 예쁜 편이었다. 아래에 사진을 올리겠다.



그다음은 난킨마치라는 차이나타운에 갔다. 이곳은 위의 기타노이진칸과 같이 고베의 개항에 의해 들어온 외국인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은 특유의 생동감과 풍부한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한다. 나는 이곳에서 고기찜빵 비슷한 것을 사먹었는데 꽤 맛있는 편이었다.



다음으로 고베 하버 란드를 갔다. 이곳은 모자이크 쇼핑센터와, 메리젠파크, 메모리얼 파크로 이루어져있다. 모자이크는 이름이 모자이크인 쇼핑센터인데 시간상 안에는 안 들어갔고 메리젠파크는 해양 박물관이다. 이 곳 마당에는 콜럼버스가 탄 산타마리아호 복원 판이 전시되어있다. 그리고 메모리얼 파크는 한밤중의 지진의 사상자에 대한 닛을 기리고 이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들었다.



그 다음 점심을 먹고 오사카로 이동을 하여 오사카 성을 갔다. 이곳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5년이나 걸린 대공사로 만든 것으로 몇 번의 전쟁으로 소실되었지만 재건축으로 남겨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성의 크기는 과거의 5분의 1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명동거리의 수준인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를 갔다. 신사이바시는 일본의 유명브랜드들이 모여 있어서 패션과 유행의 본거지로 변모하는 곳이다. 그리고 도톤보리는 인공수로의 옆에 있어서 오사카 최대의 먹자거리로 발전하였다.



그 다음에는 저녁을 먹고 호텔로 가서 방배정과 준비 후 선생님 방에서 다음 날 예정을 미리 공부한 후 방으로 돌아가서 좀 있다가 잤다.

다음날 아침밥도 어제와 같이 각자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도게츠교와 노노미야진자, 치쿠린에 갔다. 도게츠교는 달이 강을 건너는 듯 한 모습을 비유해 카메라마 천왕이 명명한 다리, 아라시마야에 운치 있게 걸린 목조다리의 풍



경이 우아함을 자아낸다. 다음은 노노미야진자이고 이곳은 일본고전소설의 최고라고 불리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무대가 된 신사로 전통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세신궁의 신녀가 정결히 하기 위해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치쿠린이다. 이곳은 일본 옛 귀족들의 휴양지이고, 아라시아마의 울창한 대나무가 시원하게 뻗은 대나무 숲길이다.



그런 다음은 기온거리를 갔는데 이곳은 교토의 대표적인 변화가로 야사카진자로부터 서쪽으로 펼쳐져 있으며,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수사를 갔다. 이곳은 깎아 지르는 절벽 위에 세워져있는 본당 건물이 유명하며 자연과 고풍스러운 절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토의 명소이다.

다음으로는 후시미이나리타이샤라는 곳이고, 농업의 신인 이나리를 모시는 신사로 4천개가 넘는 붉은 도리이는,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다음으로는 호텔로 가서 좀 쉬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도 평상시와 똑같이 먹고 동대사와 사슴공원을 갔다. 동대사는 높이가 약 15m, 무게 380톤의 금동좌불상이 모셔져있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이다. 그리고 사슴공원은 넓은 잔디밭에 약 1,000마리 정도의 사슴이 노닐고 있는 공원으로 동대사 가는 길과 이어져있어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사진 중에 보겠지만 붉은 천을 뒤집어쓰고 있는 불상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인간을 위해 도술을 쓰다가 추방된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링쿠타운을 갔다 왔다. 이곳은 여러 브랜드가 모여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이곳은 미국 항구의 도시 찰스톤을 이미지화한 2층 건물들이 쪽 늘어서있어 마치





일본에 다녀오다 이모저모



리조트에 온 듯 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쇼핑센터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링쿠노유온첸에 가서 온천욕을 하다가 나는 좀 일찍 나와서 책을 읽어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에 갔다. 공항에서 선생님이 저녁으로 1,000엔씩 주고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셨다. 나와 내 친구 주명이는 메밀소바를 먹으러 갔다. 다 먹고 집합장소로 가서 기다리니 다른 애들이 오기 시작했다. 다 모인 후 출국심사와 짐 검사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한국에 돌아왔다.

나는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엄청 기대하고 설레었다. 하지만 직접 가보니 시간이 허무하도록 빨리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다.♣

의붓누이

최규원 | 홍성경찰서 |

2012년 7월 9일 아마도 이날은 좋은날인가 보다.

친구 녀석이 공장을 오픈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곳에서 택일 받은 날이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 녀석 한명은 어머님 칠순이라고 연락이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근무형태가 달라 계산을 해 봐야 할 듯싶었다.



이 두 친구들은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벗어났다가 오랜 시간 나의 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 추억은 모두 서울에 남겨둔 것이다. 아무래도 휴무를 선택하여 서울을 다녀와야 할 듯싶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미리 일찌감치 올라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전날 서울로 향한 것이다. 오후 3시경 목적인 곳에 도착을 하였으나 친구들이 없다. 모

두 일을 하고 있기에 저녁 7시나 되어서 모일 수 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친구들과 자주 가던 당구장을 찾아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당구장 사장님과 시간을 보냈음에도 아직 친구들이 올 시간이 남았다. 나는 누님에게 서울 올라온 소식과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맑고 예쁜 누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나 별 일 없지? 나 서울 올라왔어.”

“그래? 어디니?”

“응, 신창. 누나는 어딘데?”

“누나 일하고 있지. 그런데 어떡하나. 누나 일 끝나고 모임 있는데...”

“그래. 그럼 모임 끝나고 보지 뭐.”

“이따가 일 끝나고 전화할게. 그때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시간이 되어 친구들이 하나 둘 모였고 술내기 당구 게임이 시작되어 한 친구가 술을 사게 되었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녁 9시 30분이 넘어 있었다.

누님이 올 시간이 된듯한데 연락이 없다. 나는 매형에게 전화를 했다. 사실 낮에 누님과 전화를 하면서 매형은 오늘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 누님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 드렸는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내일(7월 9일) 누나 환갑이야. 알고 있냐?” 하시는 것이다.

사실 누님과 매형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다. 내가 서울에 살 무렵 고1 때 처음 누님을 알게 되어 누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 벌써 35년이 된 것이다. 인근에 친 누님이 살고계시지만 미안할 정도로 누님과 가까이 지냈었다. 그러다가 내가 부모님 모시고 고향으로 전근을 하면서는 자주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안부만을 묻고 가끔 서울로 올라올 경우에 찾아뵙고 소주 한잔을 하곤 하였다.

서울에 살 당시에는 매형의 생일과 누님의 생일날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는데 생일날마저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내일 저녁 6시에 상계동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저녁

먹기로 하였으니 참석하란다.

그렇게 누님의 환갑 소식을 접하고 보니 큰일이었다. 친구 녀석 공장 오픈은 포천에서 오후 3시부터이고, 또 다른 친구 녀석 어머니님 고회연은 마야삼거리에서 저녁 6시, 누님 환갑 모임 또한 상계동에서 저녁 6시에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6시 약속 한군데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일단 포천을 먼저 갔다가 나오는 길에 상계동을 들려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님이 고회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야, 친구야 미안하다. 이만저만해서 어찌면 못 갈지도 모르겠다.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겠지만 안 되면 이해해라.” 하였더니,

“야, 걱정하지마. 우리 집도 잔치 아니냐.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저녁만 먹을 거야.” 그러면서 걱정 말란다. 친구 녀석이 참 고마웠다.

조금 늦게 누님이 친구들과 자리한 장소에 오셨고 간단하게 소주 몇 잔을 마시고 누님을 배웅하였다.

다음날, 교통편이 없어 근처에 살고 있는 막내처남의 차량을 빌려 타고 경기도 포천으로 가서 친구 녀석의 공장을 둘러보고 저녁 5시가 되어 상계동으로 향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길이 많이 막혔다. 도로변 꽃집에 들러 장미 61송이를 예쁘게 포장하여 꽃다발을 만들었다. 누님과 전화하여 장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저녁 6시부터 식구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는다고 하였는데 약 50분이 지나서 음식점에 도착을 하였다.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음식점에 들어서니 누님 내외분과 가족들이 앉아 있다가 나를 반겨줬다. 다들 내가 들고 들어온 꽃다발을 보고 입을 찹~ 벌렸다.

“그냥 밥이나 한 술 먹자고 한 건데 웬 꽃이냐.” 하며 누님이 반겨주셨다.

누님을 처음 만날 당시 젓먹이였던 큰 조카가 “삼촌,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주었다. 벌써 시집을 갔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

누님과 매형의 친지 몇 분이 더 찾아주셨고 음식과 술을 마시고 난 다

음 택시로 자리를 옮겨 노래방을 찾았다. 미안한 마음에 음식 값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조카들이 안 된다며 나를 막아서기에 2차로 간 노래방 금액을 몰래 지불하고 술 몇 잔과 노래 한곡을 부르고 몰래 빠져 나왔다. 밤 9시가 넘었기에 친구 모친의 고회연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미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이해를 구하였다.

사실 의붓 누님은 내게 특별한 존재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서울로 상경하여 세 들어 사는 고모님 집에 가족이 의탁을 하고 아버지는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어머니는 함지박에 고등어를 팔러 다니시던 시절에 내가 제일 의지하였던 분이다. 남으로 만나서 지금은 혈연보다도 더 살가운 남매로 지내고 있다.

당시 누님은 작은 체구에 예쁜 얼굴을 하고 날마다 아침이면 신창동에 위치한 초한산 배드민턴장에서 아침운동을 하곤 하였다. 나는 집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가끔 나와 배드민턴을 치셨고 그 분이 공을 잘 친다며 같이 산에 가서 운동을 하자고 하여 따라간 곳에서 누님을 처음 만난 것이다.

누님은 장군처럼 호탕하였고 술도 잘 마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결혼할 당시까지 누님은 술을 못 마셨다고 한다. 그런 것을 매형이 한잔 두잔 가르친 것이 지금은 꽤나 잘 마시게 되었다. 무더운 날 배드민턴 새벽운동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 회원이 운영하는 생맥주 가게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나는 그 틈에 끼어서 음료수를 마셔가며 친해지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누님 댁에서 여러 회원들과 음식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맥주를 몇 잔 마시던 누님이 갑자기 너 내 동생하자고 말씀하시며 남매가 된 것이다. 방향을 할 청소년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길을 걸어 갈까봐 누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시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군대 영장을 받아들고 입대하기 전날에는 내게 직접 술상을 차려주며 잘 다녀오라고 걱정까지 해주던 누나다.

사실 뭔가 특별하기는 한데 무어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내 가슴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누님이지만 그걸 특별히 꾸밀 문장이 어렵다.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지난 추억 속에서 구기고 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간속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누님도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지금도 그리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다. 사업이 잘 되시던 매형이 잘못되어 살던 집까지 내놓으시고 작은 셋방으로 옮겨야 했던 것이다. 남에게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나와 나누어 마신 소주 몇 잔에 눈물을 보였던 누님이었다.

그런 누님이 벌써 환갑이란다. 누님은 항상 나이도 먹지 않고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는데 벌써 환갑이란다. 그리고 보니 누님 얼굴에 주름도 많아져 있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누님은 비켜갈 줄 알았건만...

엿저녁 올 휴가를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에 특별하게 같이 지낸 긴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님과 매형을 모시고 남해안으로 달려가려 한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기에 이 번 만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 한다.

이제는 좀 더 나은 편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인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 조금은 야속하다. 오늘 누님이 많이 보고 싶다.♥

효자가 옆지른 개장국



신현배 | 시인 · 아동문학가 |

개장국은 개고기를 푹 고아서 끓인 장국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즐겨 먹던 특별 음식의 하나로, 몸의 원기를 돕는 음식이라고 '보신탕'이라고도 하지요. <동국세시기>에는 개장국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은 개고기에 파를 듬뿍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고 한다. 여기에 닭고기나 죽순을 곁들이면 더욱 맛이 좋아진다. 개장에 고춧가루를 타 밥을 말아 먹고 땀을 흠뻑 흘리면 더위를 쫓을 뿐 아니라 허약한 몸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많이 판다."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철이 여름에 가장 더운데, 개장국은 더위를 쫓는 복날 최고의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복철에 개장국을 먹으면 몸보신이 되고 원기를 회복하며,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장국은 복날 음식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보양 식품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개고기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 먹었습니다.

〈산림경제〉에는 황견, 즉 노란개가 식용으로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견은 노란개가 아니라 부자 동네인 한양 북촌 황자통방(黃子統坊)에서 잘 먹고 자란 개를 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청도 홍성에는 개장국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장국을 얹지른 고개인 국고개 이야기입니다.

옛날 충청도 홍성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어머니는 중한 병에 걸려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어머니를 간호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총각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장날에 내다 팔았습니다. 나뭇짐이 잘 팔리지 않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총각은 자신은 굶을망정 어머니에게는 꼭 음식을 챙겨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구해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총각을 '하늘이 낸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총각은 나뭇짐을 팔러 가려고 지계를 지고 사립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부탁 좀 들어주겠니?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서 개장국을 먹어야겠다." 총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개장국이요? 알겠어요. 나뭇짐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꼭 사오겠어요."

총각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장터로 갔습니다. 그날은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져간 나뭇짐을 거의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개장국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지?'

총각은 그날 번 돈으로 장터에서 개장국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국 그릇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은 해가 짧았습니다. 금방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총각은 조심조심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기온마저 떨어져, 땅바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터와 마을 사이에는 높은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총각은 빙판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총각은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고 말았

습니다.

"어이쿠!" 국그릇도 땅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개장국을 엮질러서 어찌지? 어머니가 드셔야 하는데." 총각은 분하고 속상하여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개장국만 버렸네, 아이고!" 그때 어디선가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통곡을 한다고 개장국을 다시 얻겠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장터로 가서 개장국을 사오너라."

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장터로 갔습니다. 다행히 개장국 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막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개장국을 사들고 가다가 엮질렀습니다. 오늘 꼭 어머니가 개장국을 드셔야 하니, 제발 제게 개장국을 파십시오." 총각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주인에게 애걸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효자에게 개장국을 팔지 않으면 천벌을 받지. 잠시만 기다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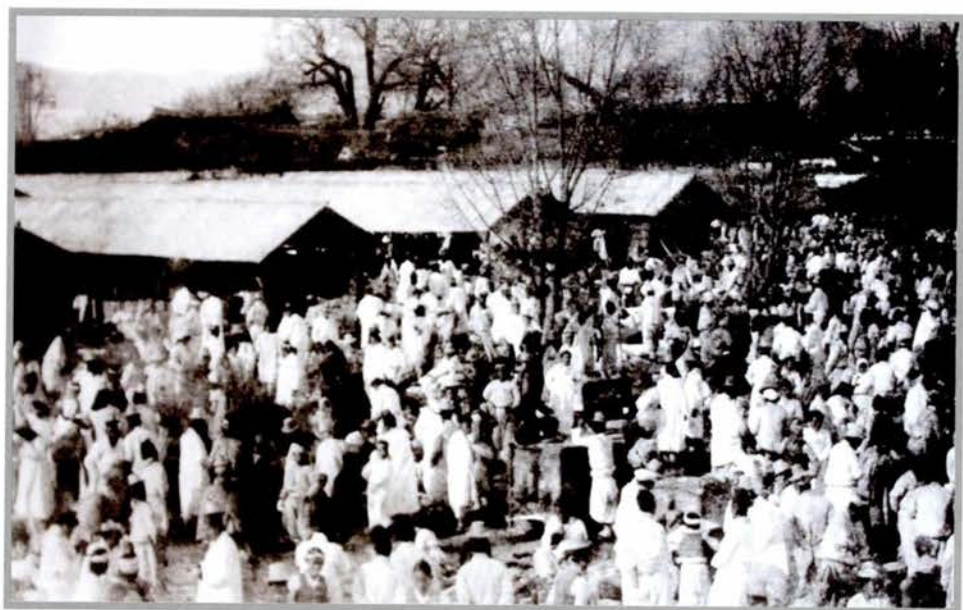
주인은 총각에게 개장국을 끓여 주고 그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그 날 밤 개장국을 무사히 집에 가져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얘야, 개장국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

어머니는 개장국을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 뒤로 홍성 고을 사람들은 총각이 개장국을 엮지른 고개를 '국고개'라고 불렀답니다. ♣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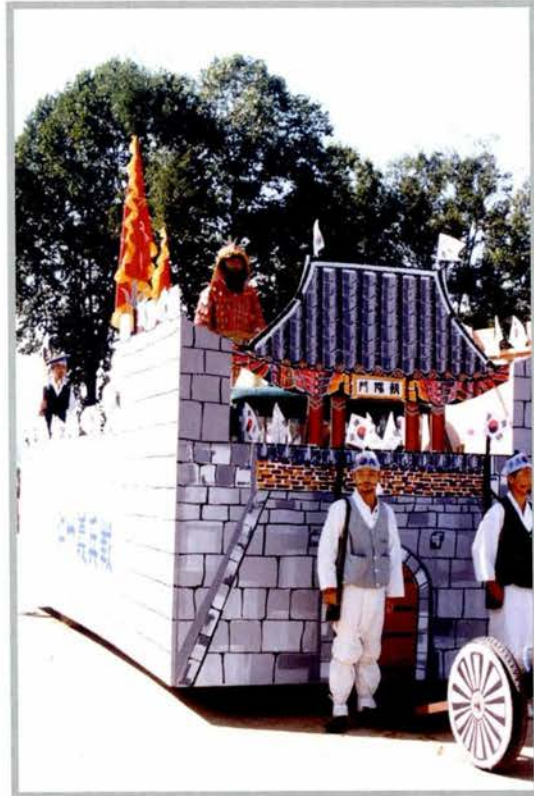
주최/주관 : 홍성문화원 | 후원 : 홍성군



|대상| 홍주장터(1920년대)



|금상| 조양문 (1910년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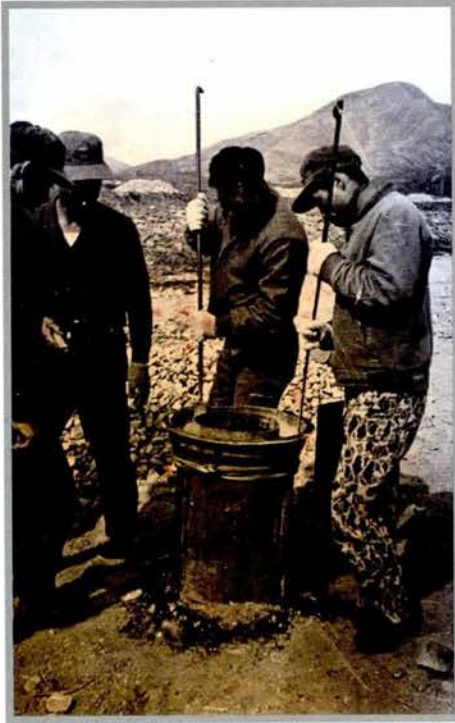
|은상| 홍주문화제 중 홍주의병전 재현행렬 (1980년대 중반)



| 동상 | 갈산면 신촌부락 정자나무 (1972년)



| 동상 | 삼륜차 (1960~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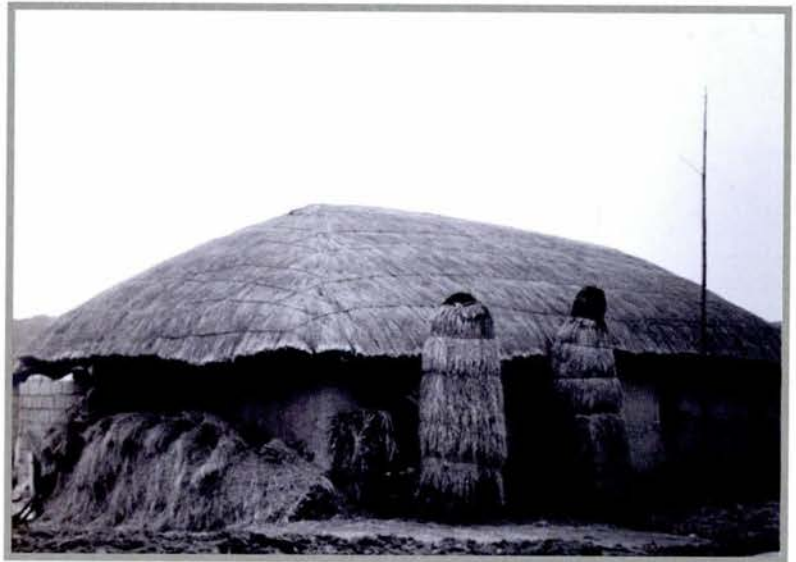
작업 모습1 (1970년대)



농악놀이 (1970년대)



작업 모습2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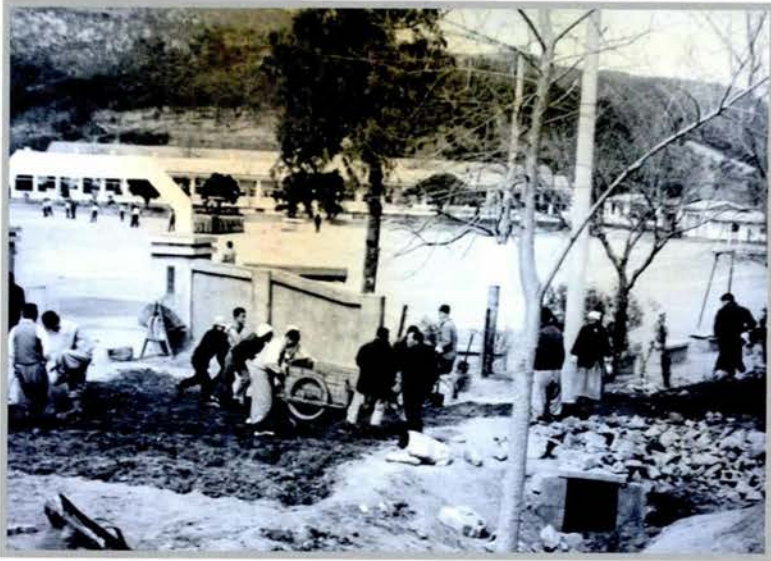
초가집 (1960년대)



부기리 고개길 (197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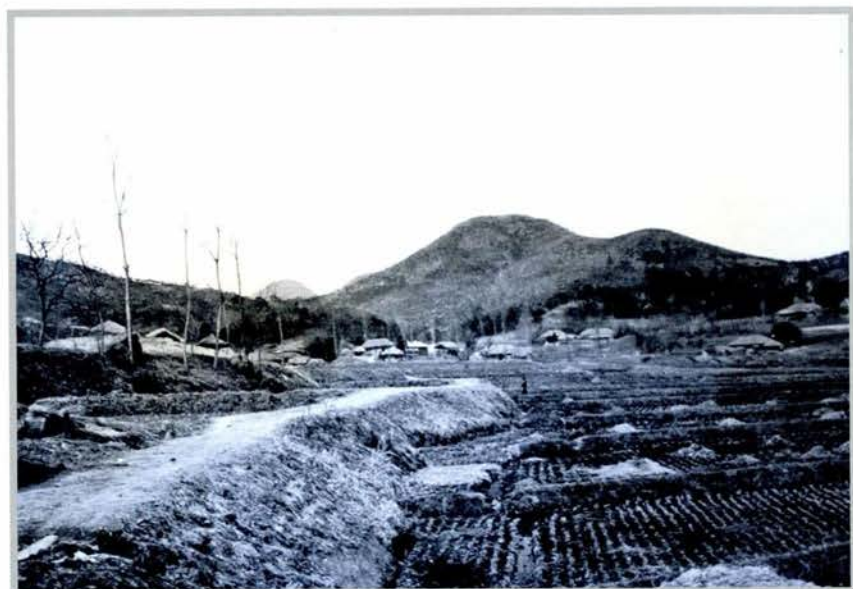
나귀와 손수레 (1972년)



마을안길작업 모습 (1972년)



펌프와 아이들 (1970년대)



갈산면 진죽부락 (1973년)



마을 공동빨래터 (1968년)



갈산면 성촌부락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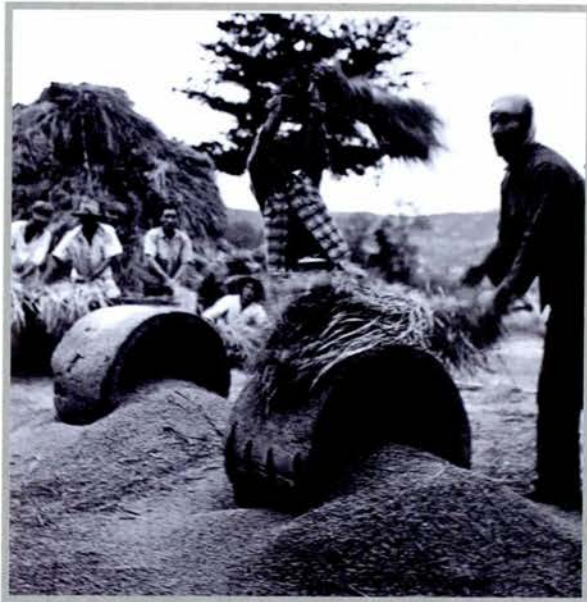
새마을사업 (1972년)



공동우물 (1969년)



이동예식장 (1970년대)



탈곡모습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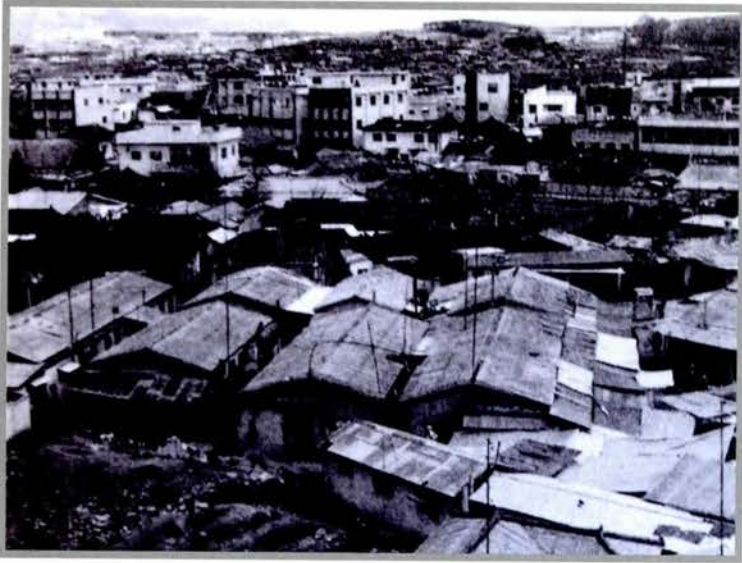
공동우물 (1960년대)



홍동면 구룡리 (196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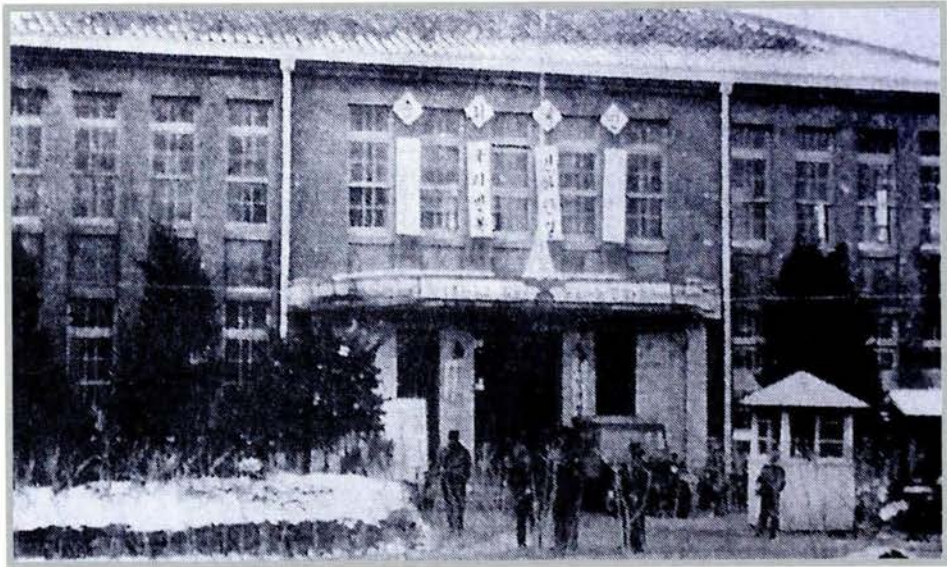
갈산면 다산부락 (1973년)



홍성상설시장 진입로 철거전 (1980년대 중반)



홍성군청 (1958년)



홍성경찰서 (1930년대)



충남홍성병원 (1956년)



갈산면 신안리 퇴비장 조성 (1963년)



수해복구 모습 (1970년대)

2012 하반기 홍성문화원 행사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 일 자 : 7. 5(목), 7. 6(금)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 내 용 :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에 접수된 250여점의 사진에 대해서 5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심사 및 수상작 발표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제5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 일 자 : 7. 16(월) ~ 7. 20(금) 5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30여점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7회 여름전통문화학교



- 일 자 : 7. 23(월) ~ 7. 27(금) 5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부여, 공주
- 대 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생 40명
- 내 용 : 우리고장 문화알기,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박공예교실, 단청교실, 짚풀공예교실, 한지공예교실, 영화감상,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제13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 일 자 : 8. 2(목)
- 장 소 : 홍성군청 여하정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코리아 무료 상영)

독도 자료 사진전시회



- 일 자 : 8. 23(화) ~ 9. 6(목) 15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독도관련 자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도사랑과 안보의식 함양

제8회 홍성내포문화축제



- 일 자 : 9. 13(목) ~ 9. 16(일) 4일간
- 장 소 : 홍주성 일원
- 대 상 : 지역주민 및 축제 관람객
- 주 최 : 홍성내포문화축제추진위원회
- 내 용 : "역사를 빛낸 3.1만세운동과 청산리전투"라는 주제로 청산리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과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사를 주제로 축제 개최

2012 하반기 흥성문화원 행사

제17회 만해제 - 만해 추모다례



- 일 자 : 9. 15(토)
- 장 소 : 만해생가지
- 대 상 : 흥성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 내 용 : 만해제를 통하여 만해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우리문화 알아보기 (남한산성문화탐방)



- 일 자 : 9. 21(금)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행궁, 수어장대, 남한산성역사관
- 대 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
- 내 용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들과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제22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 일 자 : 10. 4(목)
- 장 소 :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 대 상 : 흥성군민 50여명
- 주 관 : 흥성문화원
- 내 용 : 민속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힘자랑, 제기 차기,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경기와 풍물단 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충남도민의 민속축제 한마당에 참가

우리문화 알아보기 (장곡주류성문화탐방)



- 일 자 : 11. 28(수)
- 장 소 : 예산군 추사고택, 전통예산옹기전시박물관, 홍성군 장곡면 한국식기박물관, 학성산성, 조응식 가옥
- 대 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
- 내 용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들과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 일 자 : 매주 목요일
- 장 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문화학교 강좌



- 일 자 : 연중 운영
- 장 소 : 홍성문화원
- 대 상 : 지역주민 (매회 각 20명)
- 강좌수 : 15개
- 내 용 : 한글서예교실, 도자기핸드페인팅교실, 국선도 교실, 검도교실, 도예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교실, 풍수지리교실, 아코디언교실, 문인화교실, 명리학교실, 색소폰교실, 서양화교실, 한문서예전각교실 운영.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 제공

2012 하반기 홍성문화원 행사

음악감상실 및 향토도서관 운영



- 일 자 : 연중 운영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감상실, 향토도서관
- 대 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 내 용 :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위한 작은 공간 제공. 문화원 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 (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

「홍성문화」발간



- 발 행 : 연중 2회 (6월, 12월)
- 발행부수 : 각 1,000부
- 내 용 :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정보와 소식을 제공

「지도 증보판」발간



- 발 행 : 3월 25일
- 발행부수 : 500부
- 내 용 : 지도는 채색필사본으로 18세기 중엽 경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도대총보, 각 도별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별지도는 각 군·현의 진산과 하천, 역로, 교통로 등을 표시하고 있음. 각 문화원 및 관내 도서관에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사라지는 전통문화 I 상례」DVD 발간



- 발 행 : 3월 25일
- 발행부수 : 300부
- 내 용 : 농촌인구 감소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홍성지역 상례문화의 흔적을 기록화 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오서산과 석당산의 솔바람길 이야기」발간



- 발 행 : 12월
- 발행부수 : 1,000부
- 내 용 : 홍성의 오서산과 석당산의 역사이야기와 전설 및 문화재 소개를 주변경관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음

「사진으로 보는 홍성 100년사」발간



- 발 행 : 12월
- 발행부수 : 500부
- 내 용 : 홍성과 관련된 자연경관, 건물, 문화재, 골목, 생활상 등의 옛 사진을 공모 및 수집하여 사진집 발간. 개발과 발전으로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홍성의 옛 모습을 기록으로 보관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012 흥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201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 일 자 : 6. 5(화) ~ 10. 16(화) 20회 실시
- 장 소 : 라온의 집, 장수원
- 대 상 : 시설 어르신 40명
- 내 용 : 짚풀공예와 박과 명아주를 재배 수확하여 만든 박공예 그리고 어르신 손글씨 등을 활용한 민속공예품 및 소품을 만들어 전시 및 판매. 잊혀져가는 농촌지역의 민속공예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대와 생활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2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흥성문화나눔봉사단 - 너울물결”



- 일 자 : 6. 27(수) ~ 11. 15(목) 10회 공연
- 장 소 : 장수원, 유일원, 사랑의 집, 아름다운 건강마을, 구항면 내현리, 흥성군청 여하정, 결성면, 서부면 속동마을, 장곡면,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장
- 대 상 : 지역주민 및 축제관람객 (봉사단원 20명)
- 내 용 : 흥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보육원, 산간벽지, 교도소 등 소외시설 및 관내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국악, 민요, 가요 등 문화나눔공연 및 영화상영을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봉사의 의미,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마련

2012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구산사 어린이 학당"



- 일 자 : 7. 9(월) ~ 11. 3(토)
- 장 소 :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구산사'
- 대 상 : 금당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및 동거부부, 문화학교 수강생, 흥성관내 중학생 등
- 내 용 : 구산사 어린이 학당, 전통혼례식, 어르신생활 체육프로그램, 전통성년식(전통관례), 구산사 옛길탐사, 구산사 옛이야기 자료집 및 동영상 자료집 발간

2012 충남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여름농촌민속공예학교"



- 일 자 : 7. 30(월) ~ 8. 2(목) 4일간
- 장 소 : 흥성문화원
- 대 상 : 흥성관내 초등학생 40명
- 내 용 : 조롱박과 짚풀을 이용한 민속공예품 만들기 체험과 야생화 가꾸기를 통한 자연체험학습으로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012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결성 용대기놀이 기록화 사업"



- 일 자 : 7. 30(월) ~ 11. 15(목)
- 장 소 :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주교 일원
- 대 상 : 결성면 마을주민 60명
- 내 용 : 잊혀져가는 민속놀이인 결성 용대기놀이를 널리 알리고, 원형 보전과 계승을 위한 자료집과 영상물을 기록화 및 재현

“따뜻하고 정겨운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홍성문화에 여러분의 감성을 뽐내시는 것은 어떠실지...
짧은 시, 글, 사진 등 사랑을 표현하는 감성은 많습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소설, 칼럼, 에세이, 시 : A4 2장-5장, 글자 10POINT
- 4컷 혹은 8컷 카툰 : 14x15cm · 1654x1772픽셀 이상, 300dip의 jpg 파일 형식
- 사진 또는 그림 이미지 : 1654x1772픽셀 이상

◆ 보내실 곳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홍성문화원 사무국

- TEL : 041)632-3613
- FAX : 041)633-1199
- E-mail : hongsung3613@hanmail.net

◆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필자의 사진과 원고 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 일반회원 모집 안내 |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 대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

총회 의결권 부여
(12개월 이상 납부자)

홍성문화원 회원증 발급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향토유적 답사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 ☎041)632-3613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 발행인·전용택 / 편집인·홍성문화편집위원회
발행일·2012년 12월 / 발행처·홍성문화원 / 인쇄처·피플디자인 ☎ 041-633-5290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TEL 041-632-3613 E-mail hongsung3613@hanmail.net
편집주간·조성미 / 편집위원·강태훈·김정현·조원찬·조남민 / 편집디자인·김기연·조창희

22